

## 현역 의원에만 당원 명부 배포 '발칵'

새정치 광주시당, 지역위에 넘겨... 총선 입지자들 반발  
예비후보 등록 한달 앞... 당내 경선 불공정 시비 거셀 듯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이 각 선거구 관리당원 명단을 지역위원회에 배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일인 다음달 15일을 한달여 앞둔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들에게만 관리당원 명단을 넘겨 준 셈이어서 내년 총선 입지자들의 반발과 함께 당내 불공정 경선 시비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당내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이 커지는 등 당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또 한차례 분란 소지를 남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은 당비를 제때 납입하지 않은 관리당원 정비를 위해 최근 관리당원 명단을 각 지역위원회에 전달했다. 각 지역위원회에 적격은 2000명에서 많게는 4000명

의 명단이 배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역 각 지역위원회는 이 명단을 이용해 당비 미납 당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비 납부 권유 및 누락된 정보 보완과 함께 당비를 납부할 의사가 없는 당원들을 재정비중이다. 이는 중앙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비 미납 관리당원 정비를 위해 각 시·도당에 조직 재정비 차원에서 명단을 내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남도당은 이 명단을 각 지역위원회에 배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전화 연락을 통해 당원을 재정비중이다. 이를 놓고 내년 총선에서 광주지역 선거구에 도전하려는 일부 예비후보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당내 경선 룰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동안 당내 경선 룰을 봤을 때 당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으로서 있는 각 지역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당원 재정비를 할 경우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과 그렇지 않은 당원'을 분류해 관리할 수 있다는 폐해가 우려된다. 당직자 출신 A씨는 "그동안 당내 경선 과정에 당원 명부 유출 등이 문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시도당에서 직원들이 철저한 보안을 통해 당원 재정비를 하곤 했다"면서 "지역위원회에서 당원 명부를 확보했다면, 현역 의원들이 지지성향인 사람에게만 당비 납부를 독촉할 수 있고, 반대 성향의 당원은 정비를 할 수 있는데다 선거를 앞두고 한번 더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불공정 경선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 북구를 선거구에 출마를 준비중인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은 "입당원서는 시당이나 중앙당에 제출하는데, 왜 선거를 앞둔 시점에 각 지역위원회에서 당원 재정비를 한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지역위원회에서 당원 명단을 관리하면 당내 경선에서 당연히 현역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이는 불공정 경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분노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당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비 미납 관리당원에 대한 정비 차원에서 각 지역위원회에 일부 관리당원 명단을 넘겨줬다. 당원·당규상 지역위원장이 관리당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광주시당 상근 당직자 수가 6명인데, 5만 명이 넘는 당원 재정비를 다 할 순 없지 않느냐. 광주시당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당도 지역위원회에 명단을 전달, 관리당원 정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도시철도 2호선 '빨간불'

광주시, 4300억 추가부담에 '저심도 공법' 원점 재검토

광주시가 저심도(低深度) 공법으로 추진중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사업비를 2300억원 이상 절감해야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 예초 지상고가 방식에서 저심도 방식으로 건설방법이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최소 3100억원이 늘어났다. 여기에 푸른길 공영 보존과 차량 규모 확대 등의 민원 해결을 위한 비용을 선별적으로 도입하더라도 비용이 1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4300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 셈이다. 예초 2011년 정부 승인 예산이 1조7394억원으로, 2015년 물가변동률을 감안하면 약 2조원의 사업비를 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승인 예산 중 10%(약 2000억원) 이상 사업비가 늘어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거쳐야하는 만큼 타당성 재조사를 피하려면 예산 증액분 4300억원 가운데 2300억원을 줄여야 하

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사업비 절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기본설계 경제성(V/E) 검토 용역을 발주해 최종 결과를 오는 20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예산을 아무리 '쪼어짜도' 절감액이 1000억~1500억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저심도 공법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는 전체 41.9km 구간 가운데 지상에 올리기로 한 구간(4.2km)을 추가로 8km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난 지상 구간의 주민 반발이나 지상·지하를 오가는 불안정성 등을 감안해 모든 구간을 지상에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모노레일 도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문범수 광주시 도시철도 건설본부장은 "시장 인기 내 착공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저비용 고효율 건설을 위한 원가 절감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하루 앞둔 11일 광주시 남구 대성여고 교문 앞에서 수험생들이 후배들의 응원을 받으며 교정을 나서고 있다. /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오늘 수능 대박나세요

<b>챙겨가세요</b>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싸인펜· 샤프심(0.5mm, 흑색)· 연필· 지우개· 수정테이프	<b>서두르세요</b>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 입실. 지각우려되면 112 전화.
<b>두고가세요</b> 휴대전화· 전자사전· 스마트워치· 디카· mp3	<b>대비하세요</b> 얇은 옷 겹쳐 입고 컨디션에 따라 벗을 수 있도록 하세요

### 오늘 수능 ... 광주·전남 88개 시험장 4만245명 응시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2일 광주·전남 88개 시험장을 비롯, 전국 1212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올해 수험생은 63만1187명으로 지난해보다 9434명이 줄었다. 광주는 2만1477명으로 전년도(2만1394명)보다 83명 늘었고 전남은 전년도(1만9129명)보다 361명이 감소한 1만8768명이 응시했다.

모든 응시자들은 이날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에 들어가야 한다. 수능날 광주 최저 기온은 9도, 전남은 7도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된다. 광주·전남지방경찰청은 수능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험생 편의를 위한 특별 교통관리에 들어간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허성관 원장 공식 사퇴

광주전남연구원 새 이사장에 문순태... 후임 인선 착수

허성관 광주전남연구원장이 11일 공식 사퇴했다. 허 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 광산구 소촌동 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연구원 임시이사회에서 사퇴서를 제출했다. 광주 시의회와 전남도의회 합동 인사청문회의 부적격 판단에도 전 김수삼 이사장이 허 원장 임명을 강행한 지 20일 만이다. 허 원장 임명 강행으로 촉발된 이번 논란은 허 원장과 그를 임명한 김수삼 연구원 이사장의 사퇴로 마무리됐다. 한편 이사회는 이날 문순태(소설가) 이사를 새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후임 원

장 공모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사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광주발전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통합의 기본정신에 따라 연구원 운영 독립성과 자율성이 지켜지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이번 원장 임명 과정에서 이사회가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지역사회에 혼란을 드린 것은 전적으로 이사회 책임이다. 앞으로 연구원의 자율과 독립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면서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U대회 생산효과 3조5천억원 ▶ 2면  
월드컵 미안마전 '골 소나기' ▶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깊이 있게 스며들어 찬란한 빛이 되다  
헤라 오일 세럼 매직 포뮬라

아름다움에 깊이를 더하세요. 헤라만의 셀-바이오 모이스트™ 기술이 만들어 낸 출중한 미세오일입자가 걸피부는 신뜻하게, 속피부는 촉촉하게- 단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궁극의 보습을 선사합니다. 느껴보세요, 오일과 세럼의 마법 같은 만남

**HERA**

● 유명백화점이나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080-023-5454(수신자요금부담) www.hera.co.kr